

대한상의 브리프

권종호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8호 2017년 10월 30일



편집자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기술혁신과 기업환경 변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기업활력법을 도입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국내외 선제적 사업재편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 격변기의 기업생존전략, ‘선제적 사업재편’

글로벌 기업들 사업재편에 잔걸음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업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기존 사업방식을 고집하다가가는 현상 유지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상위 기업 10곳 중 4곳은 3년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 IMD, Cisco, ‘Digital Vortex’(2015)

아마존과 이베이는 1995년에 창업해 경쟁해온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이다. 이베이가 기존 사업 중

심으로 변화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사업재편에 나섰다.

물류관리 로봇 도입, 택배용 드론, 클라우드 서비스 등 M&A를 통해 사업영역을 넓혀갔다. 그 결과 아마존의 현재 기업가치는 4,722억 달러로 이베이의 10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혁신과 사업재편은 IT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세계적인 전자회사 필립스는 주력 사업인 가전, 반도체 분야 등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과감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LED 조명, 의료장비 부문 등의 육성에 나서 M&A를 통해 단시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마존과 이베이 사업재편 비교]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전기전자, 산업인프라 기업인 지멘스는 미래전망팀 주도로 장기적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사업부문을 개편했다. 원전, 가전 부문 등에서 철수하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공장,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M&A에 나섰다. 현재 지멘스는 해상풍력 터빈, 자동화·산업용 소프트웨어 부문 등에서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에 안주해 몰락한 기업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코닥은 1990년대까지 카메라와 필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75년에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소극적이었다. 변화를 간과하고 기존 필름 시장에 안주한 결과 코닥은 결국 2012년 파산하게 된다.

2007년 세계 휴대폰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던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가 몰락한 것도 스마트폰 대중화 추세를 외면하고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이다.

국내기업의 사업재편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재편이 최근까지 부실기업 구조조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정부가 기업활력법을 시행하면서 정상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사례 1. 태양광 제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 A사

중국기업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자 자회사를 합병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분야인 태양광셀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기업활력법을 통해 합병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감면, 정부 R&D 사업 우대 가점 등을 지원받았다.

사례 2. 선박용 엔진부품을 생산하던 중소기업 B사

조선업 불황 극복을 위해 연관분야로 사업확장에 나섰다. 기존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용 엔진부품 분야에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는 공장 매각 관련 양도차익 과세이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및 정부 R&D 사업 우대 가점 등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내 사업재편 사례]

A사_제품 고부가가치화



태양광 제품 제조업체 **합병** 관련설비 제조업체



고부가가치 태양광셀 생산
사업 효율성 개선

B사_연관분야 진출



선박용 엔진 부품 생산 감축
기술 **활용**



내륙 발전용 엔진부품
사업분야 신규 사업 진출

C사_신사업 진출



조선해양업 안전 SW
매출처 **다변화 필요**



스마트공장 시스템
드론운용 시스템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사례 3. 조선해양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C사

사물인터넷 기반 공장 시스템 분야와 드론 사업에 진출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연구인력 채용 지원, 정부 R&D 사업 우대 가점, 근로자 직업능력 훈련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활력법은 작년 8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49개 기업의 사업구조 변경, 신사업 진출, 고부가가치화 등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나타난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들의 특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승인기업의 86%가 중소·중견기업이라는 것이다. 자체 역량만으로는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기 쉽지 않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정책지원을 통해 미래 생존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업활력법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 승인기업의 52%가 대기업인 것과 비교하면 입법 당시 대기업 특혜법이라던 우려는 기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승인기업의 61%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다. 업종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신규사업 진출 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 나머지 39%는 섬유, 반도체 등 타 제조업과 유통·물류 등 서비스 업종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산업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따라서는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가 기대보다 많다.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특별법 등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이 월평균 3.3건 승인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월평균 3.8건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 크다 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치열한 경쟁상황에 대응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필요로 하는 기업수요와 정책당국의 적극적 사업재편 추진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선제적 사업재편 확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산업 전반으로 사업재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규모별 승인기업]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86%

총 승인기업수 49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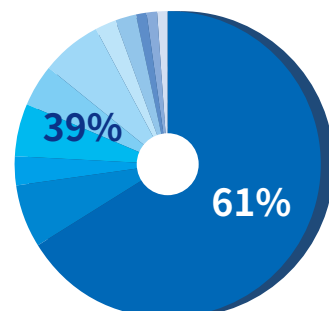
[업종별 승인기업]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공급과잉 업종 61%

총 승인기업수 49

기계 5
유통·물류 4
전선 3
반도체 2
섬유 2
태양광 1
엔지니어링 1
자동차정비 1

조선 21
철강 6
석유화학 3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먼저 적용 대상을 보다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은 전 산업의 1/3 수준인 공급과잉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설비매각, 생산량 감축과 합병·분할 등 구조변경, 신사업 진출, 신기술 도입 등 사업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요건은 법적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제도 지원 신청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용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적용요건을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 별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인 사업재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운전자금 등에 대한 기업수요를 반영해 저리 융자 확대 등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사업재편 필요자금을 장기·저리 융자해주거나 채무보증·출자 등도 지원해주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재편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시선도 개선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대한 부정적 시선 때문에 자칫 거래처와의 거래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금융권에서도 자금 조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재편의 필요성은 알지만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재편이 부실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재편을 통한 재무상태 개선, 고용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현 재	개선방향
- 과잉공급업종 대상 - 복잡한 적용요건	- 전 산업으로 확산 - 적용요건 완화
R&D지원, 절차간소화 등 간접지원 중심	사업재편 관련 금융 지원 고려
사업재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인식개선

지난해 8월 도입된 기업활력법은 이제 시행 1년이 넘어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들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활력법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핵심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10월 30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 ^(E)	IMF		OECD	
			2017 ^(P)	2018 ^(P)	2017 ^(P)	2018 ^(P)
한국	2.8	2.8	3.0	3.0	2.6	2.8
세계	3.4	3.2	3.6	3.7	3.5	3.6
미국	2.6	1.5	2.2	2.3	2.1	2.4
중국	6.9	6.7	6.8	6.5	6.6	6.4
일본	1.1	1.0	1.5	0.7	1.4	1.0
EU	2.0	1.8	2.1	1.9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131	1,161	1,133	1,125	1,130	1,134	1,131	1,132
원/엔	934	1,068	1,029	1,003	1,019	1,009	1,030	1,022
원/위안	180.1	174.4	164.5	163.5	166.1	167.5	169.2	172.3
원/유로	1,255	1,283	1,213	1,245	1,269	1,306	1,337	1,348
유가(Dubai)	32.2	53.8	50.2	50.1	46.5	50.4	49.3	55.2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생산	1.9	3.0	3.5	2.6	1.7	2.0	2.6	-
소매판매	4.1	4.3	2.6	1.4	1.1	3.5	0.8	-
설비투자	6.9	-1.3	14.3	20.0	18.6	25.1	13.2	-
수출	-8.0	-5.9	23.8	13.1	13.4	19.5	17.3	35.0
수입	-16.9	-6.9	17.3	19.1	19.8	15.5	15.3	21.7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